

##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백혜영      신희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부부와 연인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1996)을 통해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인 100쌍과 부부 103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생활지향검사 개정판(LOT-R)과 배우자평정척도, 결혼만족척도(MSS)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역할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낙관성은 관계만족에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적인 개인은 자신의 애정관계에 대해 높은 관계만족을 보일 뿐 아니라, 낙관적인 개인의 상대 역시 높은 관계만족을 보고하였다. 둘째,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낙관성과 관계 만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츠트랩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부분 매개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보였고, 여자의 경우 부분 매개된 자기효과만을 보였다. 즉, 낙관적인 남자는 자신의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긍정적 평가는 자신의 관계만족 뿐 아니라 상대의 관계만족 역시 높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낙관적인 여자는 자신의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관계만족은 높을 수 있으나, 그것이 상대의 만족까지 높게 예측하지는 않았다.

**주요어 :** 낙관성, 긍정적 평가, 관계만족,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 bootstrap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와 같이 사랑을 전제로 한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며(Karney & Bradbury, 1995), 관계 만족은 이혼과 결별 그리고 파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Gottman & Levenson, 2000). 또한 기혼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행복의 예언변인은 양질의 결혼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Russel & Wells, 1994). 이처럼 애정관계에서 경험되는 만족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애정관계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이

\* 본 연구는 구원(九元)장학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2007)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쌍자료 분석방법을 소개해주신 경남대 고재홍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신저자 : 신희천,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1) 219-2747,

E-mail : heshin@ajou.ac.kr

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변인들이 조사되어 왔다. 사회적 맥락 변인(예; 연령, 교육, 직업, 계층 등)부터 개인특성 변인(예; 성격, 태도, 신념 등), 가족배경 변인(예;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예;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인들이 애정관계 만족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홍대식, 2005). 그런데 최근 긍정심리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은 상당 부분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고(Davis, 1996; Fontaine & Jones 1997; Murray, Holmes, & Griffin, 1996; Srivastava, McGonigal, Rochards, & Butler, 2006), 이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개인특성 변인 중 하나는 낙관성이다.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으로 정의된다(Scheier & Carver, 1992).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의미하는 비관성(예컨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으나 비관성과는 독립적으로 간주된다. 즉 비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낙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2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Wolfgang, Schweizer, & Moosbrugger, 2007). 긍정 심리학에서는 낙관성을 인간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원동력이며 동기로 보고 있다(Peterson, 2000).

낙관성은 ‘개인’ 특성 변인이기도 하지만 ‘관계’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인간(interpersonal) 변인이다. 예를 들어, Bradbury와 Fincham(1990)의 연구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쌍들 중에서 오직 비관주의자로 이루어진 쌍들에서만 애정관계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됨을 발견함으로써 낙관성이 한 개인의 특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수준의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낙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낙관성과 신체적, 심리적 안녕과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관성은 신체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Brewin, Andrews, & Furnham, 1996; Scheier & Caver, 1992) 급성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면역요인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pperd, Maroto, & Pbert, 1996; 홍대

식 2005에서 재인용).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가며(Scheier, Carver, & Bridges, 1994),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우울, 자살행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 Carver, 1992). 낙관성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낙관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특성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주희, 1995).

위와 같이 낙관성이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낙관성이 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다(Keim & Lappin, 2002; Murray, Holmes, & Griffin, 1996; Srivastava, McGonigal, Rochards, & Butler, 2006).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고(Geers, Reilly, & Dember, 1998) 더 호감을 많이 주며(Carver, Kus, & Scheier, 1994),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ougall, Hyman, Hayward, McFeeley, & Baum, 200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물음은, 과연 낙관성이 신체적·심리적 안녕 뿐 아니라 관계만족과 같은 ‘관계’수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낙관성이 관계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낙관성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관련된 한 가지 설명은, 낙관적인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환상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낙관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이상화함으로써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Murray 등(1996)은 자기고양편향(self-enhancing biases)이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되어가는 과정을 이상화 과정이라 보았으며, 이상화 과정 이후에 가지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 환상’이라 불렀다. 실제로 자기 자신과 깊이

관련된 현실에 한해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즉, 자기관련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지각하는 자기고양편향이 정신건강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현실 왜곡은 정신 병리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정확한 자기지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Taylor & Brown 1988).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친한 친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친구의 실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보다 덜 책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 및 자신과 친한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Lemyre & Smith, 1985; 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제인용).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애정관계에서의 만족감을 높여줄 것임을 시사하는 몇몇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Srivastava 등(2006)의 연구는 낙관주의자들의 관계 만족이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긍정적 평가가 실제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최진희 등(2002)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부부관계를 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도록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긍정적 평가는 높은 관계만족을 예측하며, 나아가 상대를 자신이 보았던 그 모습으로 실제로 변모시키기도 한다(Murray, Holmes, & Griffin, 1996). 따라서 애정관계의 만족에 있어서도 긍정적 평가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면 상대방의 단점들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은 만족스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비롯한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지하기도 하였다(Swam, Ronde, & Hixon, 1994). 이처럼 긍정적 환상이나 평가가 관계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다소 혼재된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 아직 규명될 필요가 있는 물음으로 남아있다.

긍정적 환상은 흔히 세 가지 지표<sup>1)</sup>로 측정된다(Murray et al., 1996; 최진희 등, 2002).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평정이 포함되는 지표2와 지표3은 긍정적 환상을 측정하는데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높은 사람의 경우, 그 상대가 환상을 가지고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긍정적 환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배우자를 일반적인 배우자보다 긍정적인 특성을 더 많이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을 더 적게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긍정적 평가’라 정의하고,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값에서 전형적인 배우자에 대한 평정값을 뺀 차이를 긍정적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최진희 등, 2002; Murray et al., 1996; Srivastava et al., 2006)에서 시사되듯이, 낙관주의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 긍정적인 동시에,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지각과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낙관주의자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이끌어 내고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arver, Kus, & Scheier, 1994). 즉, 낙관적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반대로 주변사람들이 낙관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호감을 느끼며(Carver, Kus & Scheier, 1994), 낙관주의자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관계만족을 보고하며, 낙관주의자 뿐만 아니라 낙관주의자의 상대 역시 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Srivastava et al., 2006).

이처럼 낙관성이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상호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나 연인과 같은 쌍을 분석단

- 1) 지표1.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전형적 배우자에 대한 평정(전형차)
- 지표2. 실제 배우자에 대한 평정-배우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정(실제차)
- 지표3. 실제 배우자에 대하여 내린 평가-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정(자기차)

위로 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Kenny, 1996)’을 적용하고자 한다. APIM은 부부나 연인과 같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쌍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커플 자료의 비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단위는 커플이 된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연애크플의 관계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자신의 개인적 특징이 그 자신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의 특징이 다른 한 쪽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즉, 커플의 자료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자료로 다루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ANOVA나 중다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이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커플 관계에 있는 각 구성원들로부터 얻어진 관찰치는 비독립적인 성질을 지니므로 이와는 다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서정선, 신회천, 2007). Kenny(1996)의 설명에 의하면, 커플은 파트너 선정 초기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정서적 건강, 관계 가치 등의 넓은 범위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한 개인의 특성들이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함께 외부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료는 비독립적인 특성을 띄게 된다(박영화, 고재홍, 2005; 서정선, 신회천, 2007). 따라서 애정관계 연구에서는 자료가 쌍 단위(예; 남편과 부인 하나의 단위)로 수집될 때 좀 더 신뢰할만한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호감이나 결혼만족과 같은 변인은 상호 상관된 자료인데, 이러한 자료를 쌍이 아닌 남편과 부인의 개별적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1종 오류나 2종 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인간 역동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Kenny, 1996; 서정선, 신회천, 2007에서 재인용).

APIM의 주요한 두 가지 요소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이다. 자기효과란 개인의 특성이 그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상대방 효과란 개인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관적인 아내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효과이고, 아내의 낙관

성이 상대방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대방효과이다. APIM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확인시켜 줌으로써 커플 자료의 보다 풍부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관계내의 역동을 추론하는데 유용한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적인 사람은 스스로 관계만족감이 높은지(자기효과)와 낙관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주는지(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낙관성이라는 개인특성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인지과정을 매개로 관계만족이라는 대인관계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는 다시 자기 혹은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APIM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하고자 커플을 분석 단위로 한다.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애정관계에서의 낙관성을 연구한 Srivastava 등(2006)의 연구와 동일하게 부부 혹은 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설문에 참여하였을 때만 자료에 포함시켰다. 커플 쌍 자료를 수집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이라 불리는 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약 300쌍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210쌍의 자료가 수거되었고 그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7쌍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연인 100쌍과 부부 103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인의 경우, 남자의 평균연령은 28세(21~63세)였고 여자의 평균연령은 26세(20~60세)였으며 평균관계지속기간은 22.4개월(1~87개월)이었다. 부부의 경우, 남자의 평균연령은 37세(26~61세)였고 여자의 평균연령은 35세(25~56세)였으며 평균관계지속기간은 125.4개월(18~407개월)이었다.

사용 척도

**낙관성 척도 : 생활지향검사 개정판**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 Carver와 Bridge가 1994년에 개정한 생활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 LOT-R)을 사용했다. LOT-R은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를 사용한다. 본래의 척도는 긍정적 진술문항(3문항; 예,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 부정적 진술문항(3문항; 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호문항(4문항; 예,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진술 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기대를 역산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낙관성과 비관성을 다른 것으로 보는 2요인이론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합산한 총점으로 산출한 단일 측정치를 사용할 경우 낙관성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Wolfgang, Schweizer, & Moosbrugger, 2007). 본 연구에서 낙관성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82, 남자 .87, 여 .90이었다.

**긍정적 평가 : 배우자 평정 척도**

긍정적 평가의 측정에는 최진희 등(2002)이 구성한 배우자 평정 척도를 이용하였다. Murray 등(1996)의 평정 방식에 따라 응답자들은 제시된 특질 형용사에 대하여 자기의 실제 배우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배우자들을 각각 9점 척도(1 :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9 : 완전히 일치함)상에서 평정하도록 지시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희 등(2002)이 사용한 25가지 특질 형용사 중 응답자에 따라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성으로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3가지 특질(전통적인, 비판적인, 감정적인)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긍정적 속성 15가지(친절한, 자신감 있는, 사교적인, 지적인, 개방적인, 재치 있는, 관대한, 합리적인, 이해심이 깊은, 수용적인, 따뜻한, 사교술이 좋은, 매력적인, 운동신경이 좋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와 부정적인 속성 7가지(게으른, 지배적인, 변덕스러운, 사려심이 없는, 냉담한, 불평을 자주 하는, 유치한)가 제시되었다. 부정적 속성은 역코딩하였고, “실제배우자 평가전

형적 배우자 평가”를 계산한 후 음수를 없애기 위해 최소 값을 더하였으며 아이템파라미터(item parceling;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을 통해 3개의 측정변인으로 나누었다.

**관계만족 척도 : 결혼만족척도**

관계만족은 Roach, Fraizer와 Bowden(1981)이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을 서정선과 신희천(2007)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한 40문항을 사용하였다. MSS는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perception)을 측정한다. 하위요인으로 애정적인 부부관계(20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7문항),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7문항), 권위적인 부부관계(6문항)가 있고, 5점 리커트 방식이다. 연애 중인 커플인 경우, 결혼만족척도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이성관계에 어울리는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모든 문항에서 ‘배우자’를 ‘이성친구’로, 35번 문항에서 ‘성관계’를 ‘스킨십’으로 수정). 결혼 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서정선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 남편의 경우, 애정적 관계 .95, 결혼생활 적응 .87, 결혼생활 불만족 .89, 권위적 부부관계 .75였고, 부인의 경우 각각 .97, .95, .87,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계수)는 부부의 경우 애정적 관계 .98, 관계 적응 .86, 관계 불만족 .95, 권위적 관계 .92였고, 연인은 각기 .98, .89, .94, .90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5.0과 AMOS 7.0이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통해 낙관성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셋째, 낙관성과 관계만족을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총 네 단계를 거쳐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을 확인했다. 매개효과 유의미성은 Sobel 검증보다 더욱 민감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츠트랩 검증(bootstrap test)을 통해 이루어

표 1. 연구모델 검증에 이용한 측정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낙관성1(남)	3.74(.90)	1																				
2 낙관성2(남)	3.75(.97)	.651**	1																			
3 낙관성3(남)	3.90(.93)	.712**	.724**	1																		
4 낙관성1(여)	3.67(1.24)	.232**	.133	.290**	1																	
5 낙관성2(여)	3.57(1.03)	.208**	.124	.276**	.775**	1																
6 낙관성3(여)	3.91(1.16)	.269**	.178**	.346**	.750**	.726**	1															
7 긍정적평가1(남)	54.36(7.24)	.354**	.481**	.458**	.362**	.280**	.251**	1														
8 긍정적평가2(남)	72.51(9.80)	.331**	.433**	.419**	.202**	.114	.180*	.717**	1													
9 긍정적평가3(남)	73.89(9.57)	.205**	.356**	.298**	.194**	.205**	.152*	.751**	.715**	1												
10 긍정적평가1(여)	54.61(8.95)	.179*	.229**	.289**	.410**	.395**	.454**	.494**	.332**	.432**	1											
11 긍정적평가2(여)	71.30(11.87)	.162*	.211**	.224**	.372**	.369**	.400**	.455**	.427**	.378**	.749**	1										
12 긍정적평가3(여)	72.41(10.33)	.231*	.210**	.293**	.415**	.435**	.441**	.477**	.363**	.418**	.730**	.813**	1									
13 애정적관계(남)	77.85(12.72)	.495**	.484**	.475**	.576**	.434**	.475**	.671**	.531**	.469**	.563**	.529**	.525**	1								
14 관계적응(남)	27.14(4.65)	.574**	.535**	.586**	.538**	.450**	.511**	.539**	.390**	.286**	.397**	.357**	.379**	.823**	1							
15 관계불만족(남)	27.15(5.15)	.540**	.491**	.549**	.552**	.448**	.509**	.601**	.500**	.368**	.439**	.422**	.446**	.848**	.823**	1						
16 권위적관계(남)	27.00(4.43)	.437**	.419**	.454**	.504**	.406**	.468**	.588**	.509**	.439**	.463**	.476**	.516**	.768**	.648**	.762**	1					
17 애정적관계(여)	76.34(16.58)	.431**	.372**	.471**	.629**	.544**	.582**	.604**	.523**	.414**	.650**	.618**	.649**	.851**	.715**	.765**	.754**	1				
18 관계적응(여)	25.55(6.14)	.438**	.371**	.471**	.603**	.560**	.571**	.595**	.550**	.424**	.602**	.565**	.568**	.742**	.656**	.724**	.676**	.901**	1			
19 관계불만족(여)	26.96(6.10)	.420**	.391**	.493**	.590**	.505**	.588**	.569**	.539**	.360**	.602**	.592**	.597**	.777**	.652**	.782**	.730**	.902**	.830**	1		
20 권위적관계(여)	22.74(4.98)	.359**	.321**	.429**	.544**	.475**	.564**	.526**	.462**	.327**	.619**	.614**	.639**	.709**	.583**	.679**	.741**	.858**	.794**	.854**	1	

\*\* $p < .01$ , \* $p < .05$

어졌다(Shrout & Bolger, 2002; Wei, Heppner, Russell, & Young, 2006). 부츠트랩 검증은 주어진 자료를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자료를 만들어내 분석함으로써 정규분포가 가정되지 않은 자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는 개인 내 효과와 대인 간 효과 모두에 관심을 두고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기본적인 자료 분석 전략으로 채택하였다(Kashy & Kenny, 1997). APIM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커플 멤버 모두에 교차해서 드러나므로 성별에 따른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본 연구의 의문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방정식을 사용한 모형 검증에서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지표의 적합성 여부는 홍세희(2000)를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 결 과

###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낙관성을 측정하는 3개의 측정변수<sup>2)</sup>와 긍정적 평가를 예측하는 3개의 측정변수<sup>3)</sup>, 그리고 관계만족을 예측하는 4개의 측정변수<sup>4)</sup>들이 측정모형에 포함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모두  $p < .001$ 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 2) 낙관성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1번, 4번, 10번)을 각각의 측정변수로 삼았다.
- 3) 실제의 배우자와 전형적인 배우자의 차이값을 아이템파슬링(item parceling; Russell, et al., 1998)을 통해 세 개의 측정변수로 나누었다.
- 4) 결혼만족척도의 4가지 하위요인인 애정적 관계, 관계 적응, 관계 불만족, 권위적 관계를 측정변수로 두었다.

을 위한 모형의 적합도는 TLI=.91, CFI=.93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RMSEA는 .10로 좋지 못한 적합도를 보인다. 그러나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가 작을 때, RMSEA값은 나쁜 적합도를 보이고, TLI와 CFI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 RMSEA값이 작은 변수의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므로, TLI와 CFI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수도 작은 편이므로 TLI와 CFI를 위주로 평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수용가능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이후의 구조모형에서도 TLI와 CFI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

측정변수간의 상관성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낙관성과 관계만족 간의 상관성은 남자( $r=.42\sim.59$ ), 여자( $r=.48\sim.63$ )로 모두 유의미했다. 낙관성과 긍정적 평가 간의 상관 역시 남자( $r=.21\sim.46$ ), 여자( $r=.37\sim.45$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와 관계만족 간의 상관도 남자( $r=.29\sim.67$ ), 여자( $r=.57\sim.65$ )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검증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

남자와 여자의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TLI=.94, CFI=.95, RMSEA=.10으로 어느 정도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홍세희, 2000).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낙관성은 자신의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으며(자기효과) 낙관주의자의 상대 역시 더 높은 관계만족을 보고한다고 볼 수 있다(상대방효과). 또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그리고 남녀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등가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통해 확인(Kenny & C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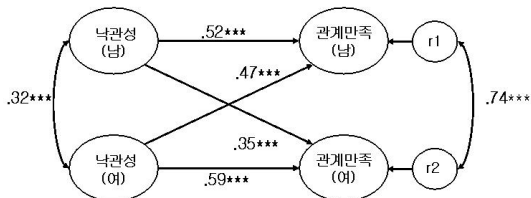


그림 1.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1999)한 결과,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p<.01$ 에서 유의하게 컸고, 성별에 따라 보았을 때 여자의 자기효과가 남자의 자기효과보다  $p<.01$ 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낙관성과 관계만족이 긍정적 평가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네 단계 검증과정을 따랐다. 첫째,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를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긍정적 평가가 관계만족을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셋째,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를 거쳐 관계만족으로 가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한지 검증한다. 넷째,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 알기 위해 긍정적 평가를 통제하고 낙관성으로부터 관계만족으로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의 유의미성을 검증한다.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TLI=.94, CFI=.96, RMSEA=.09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홍세희, 2000).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상대방효과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신이 낙관적이면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낙관적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낙관주의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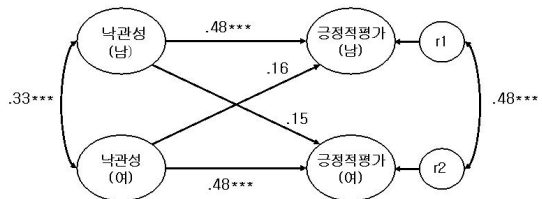


그림 2.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 평가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

상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가지는 것이 자신의 관계만족과 상대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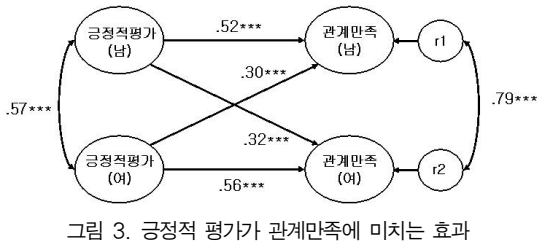


그림 3. 긍정적 평가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

합도는  $TLI=.92$ ,  $CFI=.94$ ,  $RMSEA=.12$ 로 어느 정도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홍세희, 2000). 상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가지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관계만족에 대해 자기효과를 가졌다. 즉, 상대에게 긍정적 평가를 가지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본인의 관계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긍정적 평가는 상대방의 관계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관계에서 상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가지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역시 관계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 검증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평가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매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긍정적 평가가 자신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긍정적 평가가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을 거치면서 정리된 매개모델(그림 4)을 채택해 분석하였다. 각각의 매개경로 검증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츠트랩(bootstrap test)검증(Shrout & Bolger, 2002; Wei, Heppner, Russell, & Young, 2006)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낙관성(남)→긍정적 평가(남)→관계만족(남)의 경로는 95% 신뢰구간에 BC(1.413, 3.968)가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했다. 또한 낙관성(남)→긍정적 평가(남)→관계만족(여)의 경로도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BC(0.227, 1.128)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낙관성(여)→긍정적 평가(여)→관계만족(여)로의 간접효과 역시 유의했지만, 낙관성(여)→긍정적 평가(여)→관계만족(남)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자가 낙관적인 것이 남자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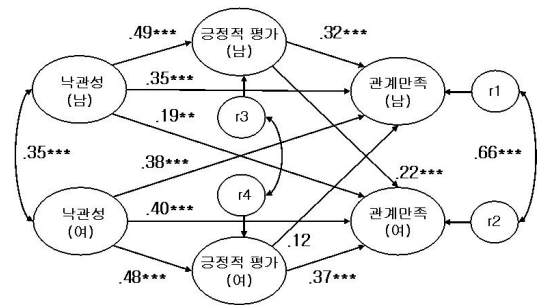


그림 4. 긍정적 평가 매개모델

는 하지만 긍정적 평가를 매개변인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긍정적 평가를 매개로 한 낙관성의 관계만족에 대한 효과에 대해 성차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직접경로의 유의미성 검증

마지막으로 직접경로를 확인해서 완전매개인지, 부분매개인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나온 매개경로 세 가지의 직접경로의 유의미성은 표 2의 Direct effect에 제시하였다. 이 직접효과는 매개경로가 통제된 상태에서의 직접효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유의미할 경우, 모델이 부분매개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매개경로가 유의미하게 나온 경로들이 직접경로 역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 모형은 부분매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를 매개로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APIM 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낙관성이 개인 내 차원과 대인 간 차원에서 갖는 효과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대인 관계의 역동적 과정을 긍정적 평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이 자기와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대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



표 2. 최종모델의 매개효과 유의미성 검증

Effect	Path	Estimate	SE	95% CI	
				Bootstrap percentile	Bias-corrected
Direct	낙관(남) → 만족(남)	1.112	0.353	(0.481, 1.881)	(0.456, 1.877)
	낙관(남) → 만족(여)	5.494	0.936	(3.845, 7.437)	(3.617, 7.190)
	낙관(여) → 만족(남)	4.418	0.766	(3.050, 6.046)	(2.883, 5.878)
	낙관(여) → 만족(여)	1.698	0.262	(1.233, 2.293)	(1.222, 2.290)
Indirect	낙관(남) → 평가(남) → 만족(여)	0.628	0.202	(0.245, 1.011)	(0.277, 1.128)
	낙관(남) → 평가(남) → 만족(남)	2.492	0.654	(1.337, 3.874)	(1.413, 3.968)
	낙관(여) → 평가(여) → 만족(여)	0.754	0.148	(0.465, 1.062)	(0.490, 1.093)
	낙관(여) → 평가(여) → 만족(남)	0.667	0.420	(-0.201, 1.400)	(-0.178, 1.484)
Total	낙관(남) → 평가(남)	4.296	0.776	(2.909, 6.002)	(2.818, 5.871)
	낙관(남) → 만족(여)	1.739	0.346	(1.085, 2.471)	(1.144, 2.058)
	낙관(남) → 만족(남)	7.985	0.936	(6.321, 10.000)	(6.258, 9.945)
	낙관(여) → 평가(여)	4.357	0.609	(3.026, 5.525)	(3.209, 5.536)
	평가(여) → 만족(남)	0.153	0.103	(-0.043, 0.347)	(-0.043, 0.349)
	낙관(여) → 만족(남)	5.085	0.620	(3.981, 6.402)	(3.981, 6.402)
	평가(여) → 만족(여)	0.173	0.036	(0.108, 0.247)	(0.108, 0.246)
	낙관(여) → 만족(여)	2.452	0.257	(1.984, 2.981)	(1.984, 2.981)
평가(남) → 만족(여)	0.147	0.047	(0.055, 0.240)	(0.058, 0.248)	
평가(남) → 만족(남)	0.584	0.127	(0.325, 0.806)	(0.353, 0.848)	

다. 즉, 낙관적인 개인은 자신의 애정관계에 대해 높은 관계만족을 보고하였고, 낙관적인 개인의 상대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관계만족을 보고하였다. 이는 낙관성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모두 가진다는 Srivastava 등(2006)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둘째,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를 매개변인으로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네 단계의 검증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이 긍정적 평가를 예측하는지, 둘째, 긍정적 평가가 관계만족을 예측하는지, 셋째, 매개경로가 유의미한지, 넷째, 직접경로는 매개경로를 통제하였을 때 유의미한지를 차례로 검증하였다. 일련의 매개검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분매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자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누어 성차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낙관성이 남자의 긍정적 평가를 거쳐 관계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했

다. 또한 그 직접경로도 유의미했다. 이는 남자의 낙관성이 관계만족으로 가는 경로를 남자의 긍정적 평가가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자의 낙관성이 남자의 긍정적 평가를 거쳐 여자의 관계만족으로 가는 매개된 상대방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 여자의 낙관성이 여자의 긍정적 평가를 거쳐 여자의 관계만족으로 가는 매개경로는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여자의 낙관성이 여자의 긍정적 평가를 거쳐 남자의 관계만족으로 가는 매개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낙관적인 남자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긍정적 평가는 자신의 관계만족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만족 역시 더 높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관적인 여자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관계만족은 높을 수 있으나, 그러한 긍정적 평가가 상대의 만족까지 더 높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는 남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자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상관없이 관계만족을 보고한다는 의미이다. 즉, 남자의 경우 상대방의 긍정적 평가보다는 자신이 상대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평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남자의 관계만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차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APIM 모형 분석을 통해 발견된 흥미로운 결과이다. Cancian(1983)은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행동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여성은 주로 자기표출(self-disclosure)이나 감정적 몰입, 애정의 표현 등의 정서적인 측면을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남성은 함께 활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가지며 도움을 요청받을 때 즉시 도와주는 도움이나 행동적인 측면과 같은 도구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강진경, 1996, 재인용). 이를 본 연구결과에 적용하여 본다면 여성의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남성의 정서표현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관계만족이 높아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보내는 과장된 긍정적 평가를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도구적 행동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더욱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므로(Saxton, 1983; 서선영, 2002, 재인용), 남성들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관계만족을 더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친밀한 애정관계에서의 낙관성을 쌍자료를 통해 검증했다. 낙관성과 애정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신의 낙관성 수준과 자신이 보고한 관계만족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개인 내적 측면 뿐 아니라 낙관성이 대인 관계적 측면에 갖는 영향을 규명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PIM을 적용하여 단일 자료로는 찾을 수 없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낙관주의자가 긍정적 평가를 가지는지, 아니면 낙관주의자의 상대가 낙관주의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와 같은 이슈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실제적 의미는 낙관성과 긍정적 평가를 부부상당 및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있다. 예컨대, SHFE(Strategic Hope-

Focused Enrichment) 프로그램은 중심개념 중 하나로 ‘파트너를 평가절하 하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김희진, 2005)과 부부적응 프로그램(권정혜, 채규만, 2000) 등의 2회기에는 배우자의 장점을 확인하는 코너가 포함되어 있다(김수현, 최혜경, 2007). 이처럼 부부 및 이성관계 프로그램에서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환기시키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개인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지, 배우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 등은 더 구체적으로 경험적 확인이 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긍정적 평가가 가지는 실제적인 역할을 성차를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낙관성과 관련한 부부 및 이성관계 프로그램에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희진(2005)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과 권정혜와 채규만(2000)의 부부적응 프로그램에 본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부부가 서로의 장점을 찾아 지지를 해주는 회기에서 남편은 부인의 장점을 칭송하고 적당히 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부인은 남편에게 사실에 근거한 장점을 찾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성차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방식은 전반적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나, 상대의 결점에 대한 수용정도가 지표로 추가된다면 평가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Neff & Karney, 2005).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점을 잘 알면서도 긍정적 평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좀 더 정확한 의미의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눈덩이 표본추출은 일단 연구자가 찾을 수 있는 소수의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게 또 다른 구성원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일반화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Rubin & Babbie, 2001).

셋째, 낙관성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그리고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가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한 시점의 자료가 아닌, 인과관계를 엿볼 수 있는 종단자료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가 깨어지는 시점이 생긴다던지, 그 이후의 관계만족이 달라진다던지 하는 것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평가가 시점에 따라 변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면서 그들의 관계만족이나 친밀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조사 시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낙관성과 관계만족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부와 연인을 함께 다루었다. 하지만 부부관계와 연인관계는 기본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반면 일상을 함께 하는 정도나 혈연 및 다른 인간관계와 엮히는 정도 등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긍정적 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와 연인의 집단을 분류하여 연구할 것을 권한다.

### 참 고 문 헌

- 강진경 (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이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207-218.
- 김수현, 최혜경 (2007). 부부교육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1), 191-236.
- 김주희 (1995).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3). 낙관성과 스트레스대처양식이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노명희, 이 숙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65-83.
- 서선영 (2002).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 :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2(1), 79-97.
- 유성경, 조하나 (2003). 낙관성 수준, 상황, 대상에 따른 대인관계도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67-580.
- 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3), 53-74.
- 홍대식 (2005).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2), 67-9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7-177.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 in marriage :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33.
- Brewin, R. B., & Andrew, B. (1996). Intergenerational links and positive self-cognition : Parental correlation of optimism, learned resourcefulness, and self-evaluat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20, 247-263.
- Carver, C. S., Kus, L. A., & Scheier, M. F. (1994). Effects of good versus pessimistic outlook on social acceptance versus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138-151.
- Dougall, A. L., Hyman, K. B., Hayward, M. C., McFeeley,

- S., & Baum, A. (2001). Optimism and traumatic stress : The importance of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223-245.
- Geers, A. L., Reiliy, S. P., & Demder, W. N. (1998). Optimism, pessimism and friendship. *Current Psychology; Spring, 17(1)*, 3-17.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 Predicting when a coupl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737-745.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shy, D. A., & Kenny, D. A. (1997).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Reis & C. M. Judd(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pp.451-457).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im, J., Lappin, J. (2002). Structural Relations Couple Therapy. In Gurman, A. S. & Jacobson, N. S.(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pp.59-68). Guilford Press.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enny, D. A., & Cook, W. L. (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 433-448.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pp.100-111, 144-150, 170-182). New York : Guilford Press.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Benefits of Positive Illusion : Idealization and the Constu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79-98.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Positive Illusion in Romantic Relationship : Love is not blind, but presc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155-1180.
- Neff, L. A., & Karney, B. R. (2005). To know you is to love you : the implications of global adoration and specific accuracy for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8(3)*, 480-497.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 44-55.
- Rubin, A., Babbie, E., 성숙진, 유태균. 이선우 역 (2001).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나남출판.
-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Russel, R. J. H., & Wells, P. A. (1994). Predictor of happiness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3)*, 313-321.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view,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and trait anxiety, self mastery, and self-esteem) :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rivastava, S., MacGonial, K. M., Richards, J. M., Butler, E. M., & Gross, J. J. (2006). Optimism in

- close relationships : How seeing things in a positive light makes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43-153.
- Swann, W. B., De La Ronda, C., & Hixon, J. G. (1994). Authenticity and positive strivings in marriage and court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57-869.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olfgang A. Rauch, Karl Schweizer, & Helfried Moosbrugger (2007). Method effects due to social desirability as a parsimonious explanation of the deviation from unidimensionality in LOT-R sco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8), 1597-1607.
- Wei, M., Heppner, P. P., Russell, D. W., &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future depression :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67-79.

## **Influence of Optim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valuation**

**Hyeyeong Paik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w optimism effects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a romantic relationship by importing an positive evaluation about the partner as a mediator, and confirming the results through the API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outcome of this study can be boiled down into two major points : First, by verifying how optimism effects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a relationship, it was proven that optimism has an effect on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Second, when a positive evaluation about the partner was employed as a mediator, the final model showed that males generally demonstrated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whereas females only demonstrated a progress of actor effect.

**Keywords: Optimism; Positive evaluation; Satisfaction in a relationship; Mediator effect;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Bootstrap**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5월 2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8월 5일